

전국 언론인, 5·18 민주역사기행... 오월영령 참배

광주전남기협·언론진흥재단 초청 5·18 역사 왜곡·편향 문제 토론

전국 언론인들이 5·18민주화운동 43돌을 맞아 오월 영령과 민주 열사의 뜻을 잇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언론인을 광주로 초청해 5·18민주화운동 전문 연수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5·18 43주년 민주역사기행'을 주제로 열린 행사는 전국 언론인에게 5·18의 가치를 알리고 역사 왜곡 근절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산하 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경남·울산, 전북, 부산, 제주 등 전국 기자협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5·18 사적지를 답사하고 강연을 들으며 5·18 역사 왜곡·편향 문제를 토론했다. 행사 첫날인 11일에는 박진우 5·18기념재단 오월학교 부장



과 김철원 광주MBC 취재팀장을 초청해 5·18 역사 왜곡 근절 필요성과 언론의 소명 의식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지난 12일에는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했으며 이후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있는 금남로 전일빌딩245,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둘러봤다.

맹대한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역사를 기록하는 전국 기자들에게 5·18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5·18 전국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나무심는 건축인, 강원도 '뮤지엄 산' 건축 답사



나무심는건축인(상임대표 박종근)이 건축 답사를 진행했다.

나무심는건축인 회원 52명은 지난 9일 강원도 원주 '뮤지엄 산'을 방문, 건축물과 공간들을 둘러봤다.

「사진」 지난 2013년 개관한 뮤지엄 산은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의 대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작품으로 공간과 예술, 자연의 조화를 이룬 건축물로 이름이 높다.

참가자들은 웰컴센터, 잔디광장, 노출콘크리트와 어우러진 워터가든, 파주적으로 둘러싸인 뮤지엄 본관, 신라 고분을 모티브로한 스톤 가든, 빛과 공간의 예술가인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느낄 수 있는 특별전시장 등을 둘러봤다. 또 현재 열리고 있

는 특별 전시인 안도 타다오의 작품전 '정촌'도 관람했다.

1999년 창립한 나무심는 건축인은 생활 속 지속 가능한 공간을 꿈꾸는 건축인들이 참여한 단체로 살아 숨 쉬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작지만 소중한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전문가는, 행정,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나무심는 건축인은 '나무를 심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환경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 사는 인본주의 건축을 지향하고 있다.

나무심는 건축인 4기는 지난 2021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분적산에 배롱나무 50그루를 식수하며 출발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하트세이버 선정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복지관 이용자의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구한 공로로 '하트세이버'로 선정됐다.

「사진」 하트세이버로 선정된 평생학습지원팀 서문희 팀장과 정진선 팀원은 지난 3월 3일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에서 한 50대 이용인이 갑자기 쓰러져 호흡 및 맥박이 없자 신속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119구급대에 인계함으로써 이용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로 적극적인 응급처치 활동을 통해 생명을 구한 구조·구급대원 및 일



반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선정자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하고 배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이 수여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노동일 전남공동모금회장 '전남 2호 나눔리더' 가입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동일 회장이 '전남 2호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회장은 '220인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명예회장)에 이어 나눔리더 2호에 가입했다.

<전남 사랑의열매 제공>

독도 관심 쏟은 재벌 한국학 전문가 이진명 명예교수 별세

독도에 관심을 쏟은 대표적인 재벌 한국학 전문가 이진명(사진) 리용3대학 명예교수가 13일 오후 3시30분경(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최재철 주프랑스 대사가 14일 전했다. 향년 77세.

1946년 3월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희고,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돼 프랑스 노르망디 캉대학에서 역사학으로 학사·석사 과정을 이수했고, 1977년 파리4대학에서 '프랑스와 일본의 경제교류사'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2012년 정년 퇴임할 때까지 29년



간리용3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그는 2009년에는 한불언어문화교육자협회를 창립, 프랑스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힘썼으며 2013년에는 프랑스 고교에서 사용할 한국어 교재를 발간했다. 2015년 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우리문화가꾸기회와 함께 '일본고지도선집'을 출간했다. 2015년 프랑스 교육공로 훈장 '슈발리에'를 받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야 옥이야(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어쩌다 마주친, 그대(재)	15 헬로킴지 공학교실(재) 30 와쭉 프리매직	00 우리끼리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만파우먼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만파우먼 다크뉴스 50 네오세모(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킴지 글로벌 동물 뉴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 35 남도 지오그래피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린다의 신기한 여행(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크(재) 50 일꾼의 탄생(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MBC 다크프라이미 <당신의집은 어디에있는가>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비밀의 여자	05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어쩌다 마주친, 그대	00 만파우먼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0 꽃선비 열애사
11	30 KBS 뉴스라인	00 걸어서 환장 속으로(재)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2	10 다크 인사이트(재)	20 아이 러브 스포츠 45 통합뉴스룸 ET(재)	10 스포츠 매거진 50 양코르 UHD 특선 다크 <드라이빙 트래블러>	40 마이 로컬 텔레비전 베스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25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지(재)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최고다! 호기심딱지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50 한글용사 아이아(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캣
07:00 빅블루	12:10 극한직업	18:40 EBS 뉴스
07:15 하프와 친구들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돌레길
07:30 띠띠뽀 띠띠뽀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민국
07:45 뽕뽕뽕 뽕뽕뽕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	19:50 인간과 바다
08:00 당동당 유치원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출동! 슈퍼윙스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08:35 한글용사 아이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한숨 돌리라 갈지도 1부 나를 부르는 신도>
08:5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지	16:40 당동당 유치원(재)	21:50 EBS 다크프라이미
09:05 고고이노 우리동네공룡	17:00 페파 피그	22:50 인물사담회
09:2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17:10 마샤와 곰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티타와 쿠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5일(음 3월 26일 癸酉)

☎ 010-9790-8237

<p>36년생 외관이 이끔리면 대세를 가능하기 힘들어진다. 48년생 육성을 가려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60년생 초기에는 영세하나 나중에는 성황을 이룬다. 72년생 긴요한 불일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마라. 84년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라. 96년생 고찰이 선행되어야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8, 68</p>	<p>42년생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4년생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기탄없이 행해 보라. 66년생 우연히 발생하는 행운이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78년생 돈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련된 수밖에 없다. 90년생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사시게 될 것이다. 02년생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36, 66</p>
<p>37년생 드러나지 않은 이면에 모순이 보인다. 49년생 지금은 힘들더라도 점점 수월해질 것이니 진중하게 진행하라. 61년생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한다. 73년생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급히 터지리라. 85년생 늦을수록 불리하니 할 일을 마루지 마라. 97년생 성과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속은 있는 편이다. 행운의 숫자 : 49, 54</p>	<p>43년생 과거에 대한 경험을 되살리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55년생 숨은 뜻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 67년생 일관된 마음으로 지속되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79년생 급한 것부터 조처되었을 때 실리를 도모할 수 있다. 91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났다면 완만한 호전의 기미가 보인다. 03년생 찾을 길이 없어서 막막하겠다. 행운의 숫자 : 13, 58</p>
<p>38년생 호조를 띠면서 진척을 보이겠다. 50년생 대체적인 골격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62년생 무능한 다수보다 영향력 있는 하나가 백번 나를 것이니라. 74년생 행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86년생 실속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98년생 조짐을 무시한다면 후유증을 남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06, 77</p>	<p>44년생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코다칠 수도 있다. 56년생 오랫동안 진행될 것이니 장기적으로 대비해야겠다. 68년생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80년생 이해독심을 떠나서 임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92년생 일반적 보편성을 결여한 주관은 오류를 남기 쉬운 국량이다. 04년생 과신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03, 76</p>
<p>39년생 혼동하기 쉬우니 아는 길도 물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51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다. 63년생 철저한 실행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75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매끄러운 기저이다. 87년생 피곤하기는 해도 이득이 상당한 날이다. 99년생 중요한 일을 다루게 될 것이 심사숙고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2, 59</p>	<p>45년생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합당하다. 57년생 잡다함을 차치하면 길조를 상사시킨다. 69년생 공허한 명분 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이니라. 81년생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니 마음을 가다듬고 자제하는 것이 낫다. 93년생 임시방편적인 대처는 오래가지 못 하리라. 05년생 원칙대로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04, 65</p>
<p>40년생 우회한다면 더 좋은 길이 보인다. 52년생 추진보다는 안정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64년생 특별함을 도모하게 되는 진귀한 계기가 주어질 것이니 놓치지 마라. 76년생 점점 쌓이고 깊어지면서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88년생 불변한다면 빨리 청산해야 마땅하다. 00년생 매끄러운 기교가 자연스럽다. 행운의 숫자 : 07, 90</p>	<p>34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진다. 46년생 정도를 벗어나면 당연히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58년생 진중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옳다. 70년생 정해진 수순대로만 행한다면 아무런 하자 없겠다. 82년생 인과응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으리라. 94년생 그릇이 커야 많이 답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7, 83</p>
<p>41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긴다. 53년생 핵심 가치를 집약할 줄 아는 요령이 필요하다. 65년생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합리성을 높인다. 77년생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89년생 결코 감정적으로 대할 일이 아니니 차분하게 대처해야겠다. 01년생 파악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31, 67</p>	<p>35년생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내야 편하다. 47년생 차별화시키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9년생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으니라. 71년생 술선수범한다면 만사가 순조로울 것이니라. 83년생 탐 흘려 경작하는 과정이 있어야 보람된 결실을 얻는다. 95년생 과거에 대한 경험을 되살리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01, 80</p>